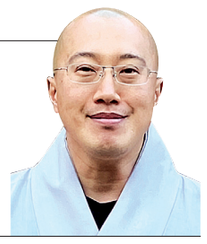
현불논단

청정한 승가와 법다운 불교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깨달음 이끌어내는 수행공동체
불교의 토대는 불 · 법 · 승 삼보
계율 따라 출 · 재가 역할 부여
바른 수계가 바른 교단 만들어

변함없이 유지되는 수계의 가치
현재는 단일계단이 정체성 계승
편리함 좇아도 정체성은 지켜야
불교의 내일은 오늘에 달려있다

불교는 2,6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다. 종교라고 하지만 창조주인 신에게 초월적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알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수행을 하는 수행공동체다. 그래서 불교는 현실에서의 깨달음과 그를 통한 삶을 중시한다.

이러한 불교의 토대는 불법승 삼보에 있다. 이중 사람으로 이루어진 승보의 존재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힘이며, 2,600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해준 불교의 기둥이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 제자이고 깨달음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로서 승가의 일원이다. 그리고 승가의 일원인 출가자와 재가자가 불법을 따르고 불교적 삶을 살 때 법다운 불교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럼 출가자와 재가자가 불법을 따르고 불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토대는 무엇일까? 바로 계와 율이다. 흔히 계율이라고도 하지만, 계와 율의 역할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율 그 자체로 불리는 것은 이 둘이 불법을 지켜주고 불교를 이어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기에 사부대중이라고 하여 각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주는 것이 수계다.

불교에서는 칠중계라고 하여 비구, 비구,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자 계와, 우바새, 우바이의 재가자계가 존재한다. 이는 칠중이 각각 역할이 다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현하여 수행에 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제 막 출가한 사미, 사미니에게는 다소 가벼운 사미십계를 주어 승가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 구족계를 받아 정식 출가자가 되어 금욕과 철저한 수행의 삶을 살게 한다.

수계는 불교인이 각자의 삶에 맞게 계를 받아 불교적 삶을 사는 토대이기에 올바른 수계가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승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과 조사스님들이 지계청정(持戒淸淨)을 강조하며 바르게 계를 지닐 때 승가가 청정해진다고 하신 것이고 그때 청정승가(淸淨僧伽)가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계는 불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힘을 주는 것이기에 계행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수행을 닦는 모습이 된다. 즉 청정한 승가와 법다운 불교는 올바른 수계를 하고 그 계에 따라 자신의 삶과 수행을 닦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계율과 수계는 율장과 경전에 의거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렇기에 성전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천된 것으로 승가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모든 불교인들이 지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불교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처승으로 오염된 일제불교에서 다시 승가를 되살리기 위해 근현대 조사스님들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수계의 부활이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계단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일계단으로 마침내 승가를 되살린 것이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출가교단으로 대표된다. 출가자를 출가자로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구족계 수계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한국불교가 증명되고 어느 불교국가에서도 승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에서도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곳에 불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부처님이 제정하시고 경율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계율이 지켜주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의 존엄성은 바뀔 수 없듯이 불교의 많은 것이 변해도 불교인의 정체성은 바뀔 수 없다.

불교의 내일은 오늘의 모습에 있다.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재가자는 재가자답게 각자가 수계한 계를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승가가 청정해지고, 불교는 법다워지며,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社 說

진우 스님 취임 300일에 부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을 맞았다. 진우 스님은 어김없이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취임 200일에는 전남 ·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 행보를 했다면, 이번 300일 차에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만났다.

7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는 최근 한국불교계의 화두가 된 '대학생 · 청년 전법' 진흥을 위한 진우 스님의 '광폭 행보'이기도 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진우 스님이 평소 대중들에게 강조해 오던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종단 내실 다지기와 한국불교 중흥 불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해 승려복지사업의 새 장을 열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고 산문을 열어 그간의 난맥들을 풀어냈다. 또한 과도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해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등 불교 규제를 개선한 것도 성과다.

진우 스님이 취임하며 국민에게 제안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명상 수행법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등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할 과제다.

이 역시 종단 싱크탱크인 미래본부를 발족하고, 해당 부서가 긴밀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종도들의 기금 답지도 이어지고 있다. 진우 스님이 보여준 300일의 행보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들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걸음들의 여정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실사구시' 불교학이 필요한 시대

지난 2011년 창립해 반야학술상을 제정 · 운영하고 학술대회와 대중강연을 통해 불교학 진흥에 힘써 왔던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새로운 불교학술지를 창간한다고 한다.

'프라즈냐'로 명명된 학술지는 산스크리트어로, '반야(般若)'를 의미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의 학술지인 '프라즈냐'는 기존 학회 학술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학술지 '프라즈냐'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계층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불교사상 전반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발굴하는 것도 학술지의 주요한 기획이다. 오는 10월 중 창간호가 발간될 예정으로 9월 30일까지 첫 수록 논물들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계 여러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회지는 전통교학, 역사 등 불교학의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 그러다보니 현대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시대 조류들을 불교적으로 고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기후위기, 계층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 학술지가 창간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주제도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반야의 완성은 연기를 아는 것이다. 이는 팔정도의 정견(正見)의 시작이고,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새로 창간되는 '프라즈냐'가 한국사회를 정견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시간도둑이 되지 마라

우리는 일생의 삼분의 일은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잠은 내일을 위한 휴식이기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나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면 좋습니까?"

저마다 생체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7시간이나 8시간 정도 자면 좋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잠을 아껴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야겠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을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반드시 후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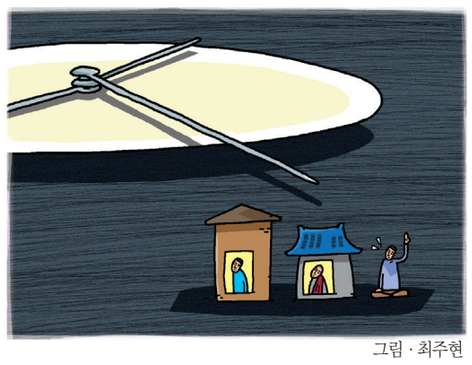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가에서는 잠을 수마(睡魔)라 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어와 목탁도 수행자들의 잠을 경책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3개월 동안 안거에 들어가면 마지막 일주일은 '용맹정진'이라 하여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가부좌하고 참선수행을 하는 거지요. 정진을 가멸차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을 자고 싶어 하는 몸을 항복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 중 하나입니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공부를 상실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사라진다고 하여 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황제에게나 거지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에 따라 삶의 행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 잘 때 같이 자고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남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머리에 벽돌을 매달아 놓거나, 뾰족한 송곳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면서 공부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쓴다는 것은 스스로가 시간도둑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갉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